

어머니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남편 협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김 지 선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교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남편 협력과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 7세 이하의 첫 자녀를 둔 기혼 여성 29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SPSS 25.0과 Mplus 7.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은 애착-회피와 양육 죄책감 간, 지각된 남편 협력과 양육 죄책감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을 가졌다. 둘째, 자기-자비는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의 관계를 매개했지만 지각된 남편 협력은 자기-자비를 통해서만 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취업모의 자기-자비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죄책감 역시 높았는데, 특히 돌봄 부족 죄책감 차이가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죄책감을 느끼는 양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불안정 성인 애착, 양육 죄책감, 자기-자비, 지각된 남편 협력

* 본 연구는 김지선(2020)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어머니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남편 협력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이며, 장훈장학회의 데이터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 심리학과

Tel: 02-3277-3911, E-mail: skyoo@ewh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를 달성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22). 출산을 하락과 관련이 깊은 비출산 의도에 대해,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 자체가 남성(28.9%)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48.0%), 그 이유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32.0%)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기혼 여성의 비출산 의도 역시 아이가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여사(25.3%)에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16.2%)가 이유로 꼽혀(이소영 등, 2018) 여성들에게 자녀가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제한하는 부담으로 작용해 비출산 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8년 여성 고용률은 50.9%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나 같은 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 결혼(34.3%)에 이어 육아(33.5%), 임신·출산(24.1%)이 큰 비중을 차지해(통계청, 2019a) 여성의 경력 단절에 자녀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상적 양육 행동과 실제 양육 행동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을 양육 죄책감(parenting guilt)이라고 한다(김현옥, 김경호, 2009; 박희진, 문혁준, 2012; 정태연, 노현정, 2005). 양육 죄책감은 주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으로 연구되어 독립적인 변수로 다루어진 연구가 드물지만(김은영, 이주연, 2014; 정나래 등, 2017), 양육 죄책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엄연히 구별되는 변수이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육 효

능감, 우울,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강보미, 김경철, 2023; 김영미, 김정미, 2017; 이래혁, 2023; 임소진, 전세경, 2016) 자녀의 문제 행동, 또래 상호작용,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등에(김현령, 류수민, 2015; 신은경 등, 2014; 유애리, 윤성민, 2023; Flannery et al., 2023) 일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양육 죄책감의 경우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면 양육에 대한 긴장감을 야기해 긍정적 양육 행동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김은영, 이주연, 2014; Scarnier et al., 2009), 이는 죄책감이라는 자의식적 감정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동기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생산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aumeister et al., 1994; Sullivan et al., 2020; Tangney & Tracy, 2012)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의 실제적 양상 또한 연구들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핀 연구들에 따르면, 성정원과 박성연(2011)의 논문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은 양육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리와 신유림(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낮지만 양육 죄책감은 높게 나타나고,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높지만 양육 죄책감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 모두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양육 죄책감의 경우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남한 여성의 양육 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김희경, 2012). 특히 취업모들의 경우 자녀와의 격리불안을 더 많이 경

험하기 때문에(김명희, 한세영, 2012) 양육 죄책감을 더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련해 양육 죄책감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성정원, 박성연, 2011) 취업모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통계청, 2019b)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 이상의 과도하게 높은 양육 죄책감이 지속될 경우 어머니의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정나래 등, 2017; Harper & Arias, 2004에서 재인용) 높은 양육 죄책감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스트레스 및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enderson et al., 2016). 나아가 과잉보호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 행동이나(김명희, 한세영, 2012) 부정적 양육 태도(박희진, 문혁준, 2012), 낮은 양육 효능감과 같은 부정적 양육 지표들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김정아 등, 2008), 정서조절능력(배선미 등, 2017)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영향력이 양육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는 연구도 있어(박희진, 문혁준, 2012) 양육 관련 주요 변수로 고려될 만하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대물림하여 불안정 애착이 대물림되는 현상에 주목하여(Wallin, 2007/2010),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보다는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내적 상태를 알아차리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있다(Fonagy et al., 2002/2022). 불안정 애착 유형의 어머니들이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내적 작동 체계를 자극하여 양육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를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과 관련한 부정 정서 가운데 양육 죄책감에 주목하였다.

Akbağ와 Erden-İmamoğlu(2010)는 성인의 불안정 애착 수준에 따라 죄책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수준에 따라 양육 죄책감 역시도 달라질 것을 시사하였다. Brennan 등(1998)은 기존 20여 년 간의 성인 애착 유형 검사들을 망라하고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모델을 수정하여 4가지 유형을 나누는 두 축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대신 애착 행동 전략(attachment behavioral strategy), 즉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로 바꾸었다. 여기서 불안은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회피는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로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들은 애착 시스템을 과잉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쓰는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들은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쓴다(Mikulincer & Shaver, 2005; Shaver & Mikulincer, 2002).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애착-불안 유형은 자신의 고통감에 집중하고 반추함으로써 거부와 분리에 대한 걱정을 일으키는 반면, 애착-회피 유형은 애착 관련 감정을 억제하고 인지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실제로 애착-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적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며(Scher & Maysless, 2000) 혼자 양육할 때보다 공동 양육을 할 때 더 적은 양육 죄책감을 느꼈지만, 애착-회피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Kerr et al., 2021). 애착-회피가 높은 성인의 경우, 자기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고 관계 경험에 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양육 관련 변인에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진다고 밝히는 연구들

이 있다. 김은영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성인 애착의 두 수준은 양육 효능감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로에 있어 애착-불안은 정신화로 매개되는 한편 애착-회피는 정신화로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행동 간 관계를 밝힌 연구(하유미, 박성연, 2012)에서도 애착-회피 성향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불안 성향은 정서조절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부모의 성인 애착과 양육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김혜원, 유성경(2017)의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애착-불안 성향이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경로를 따르는데 비해, 애착-회피 성향은 부모의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컸다. 전반적으로 애착-불안 성향에 비해 애착-회피 성향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자체가 작은 편이고,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죄책감과 같은 자의식적 감정 경험에는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Muris et al., 2014), 실제로 애착 유형에 따라 양육 죄책감을 다르게 경험했다는 연구(Kerr et al., 2021)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 따라 양육 죄책감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어머니는 양육 과정에서 주요한 지지자인 남편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 세상을 ‘안전기지’ 및 ‘안식처’로 삼아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각된 남편 협력은

남편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 아내와 어느 정도 대화하고 의견이 일치하는지, 배우자를 어머니로서 얼마나 인정하고 격려하는지 등의 내용으로(이선영, 안선희, 2016), 지각된 남편 협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죄책감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나래 등, 2017).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삶의 질 및 양육 효능감이 증가하며(채선미 등, 1999) 자녀에게 통제 및 거부적인 양육 행동 대신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김송이, 최혜영, 2007; 김은진 등, 2009). 지각된 남편 협력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 역시 높인다고 밝혀졌는데, 이 효과는 보육 기관에 대한 만족도나 보육교사와의 협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안선희 등, 2012; 정나래 등, 2017). 실제로 공동 양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러한 관계 질은 부모 각각의 적응이나 부부 관계의 질을 조율해 양육이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Teubert & Pinquart, 2010), 남편 협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양육 죄책감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어머니 양육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지각된 남편의 지지에 어머니의 애착 유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임영화, 김해란, 2020; 백현정, 2009)가 있다.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파트너의 비판이나 갈등을 마주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는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Overall et al., 2014), 애착-불안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양육에 대해 남편이 지지적이고 협력적이라기보다 비판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개인은 가까운 관계를 무시하는 경

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Weger & Tang, 2022) 남편의 지지를 적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소극성은 갈등을 회피하고 요구적인 비판을 일삼음으로써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Eldridge et al., 2007)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서 및 신체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데(Mikulincer et al., 2003), 이러한 행동은 실제적인 남편의 협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자기 자신을 향해 친절하게 대하며, 스스로의 경험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여기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또한 마음챙김 안에서 자각하고자 하는 불교 수행 및 철학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서(Neff, 2003b) 양육 죄책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질 자기-자비는 양육 죄책감과 부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일련의 절차를 통해 유도된 자기-자비는 기질 자기-자비의 효과를 제하더라도 양육 죄책감을 낮추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Sirois et al., 2018). 또한 이애선과 정여주(2022)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 애착이 양육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비가 매개했다. 한편 치매 환자의 가족 간병인이 느끼는 우울에 자기-자비가 간병인 죄책감을 통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Wallace, 2022)에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간병인은 간병인 죄책감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양육 죄책감에 자기-자비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자비는 삶의 정적 지표들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부적 지표들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Leary et al., 2007; Neff, 2003a; Neff et al.,

2007; Van Dam et al., 2011; Neff & Beretvas, 2013). 자기 위안 체계(soothing system)의 적절한 발달을 통해 자기-자비가 발달하는 과정에는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돌봄 경험이 중요하다(Baldwin, 2005; Mikulincer & Shaver, 2004). 안정 애착의 경우, 타인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대상으로 지각하도록 내적 작동 모델이 작동하는데, 이는 자기-위안(self-soothing)의 원천이 된다. 반면 불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타인의 위협 신호에 더욱 민감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들을 다치게 하거나 거절하는 타인의 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Sloman et al., 2003). 그러므로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개인은 돌보거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기 더 쉬운 한편, 불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위협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개인은 그들 자신에게 더 차갑고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다(Gilbert & Procter, 2006). 실제로 자기-자비는 애착에서 비롯되는데(Song et al., 2023), 불안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성인은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보였다(Joeng et al., 2017; Murray et al., 2021). 자기-자비가 자신의 실패나 부적절함을 인식했을 경우에 자신을 돌보고 연민을 느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Bluth & Neff, 2018)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적절한 양육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에 자기-자비가 영향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Wilson 등(2020)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과 같은 삶의 긍정적 요소에는 정적 영향을, 우울이나 지각된 스트레스와 같은 삶의 부정적 요소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근거하면 어머니가 남편의 협력을 높이 지각할 경우 자기-

자비를 매개로 양육 죄책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애선과 정여주의 연구(2022)에 따르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양육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자기-자비가 이중 매개했다. 또한 애착-불안이 자기 보고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비가 부분 매개했고(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정 성인 애착이 자기 보고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비불안이 부분매개하거나 완전 매개했다(배애진, 심혜원,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의 협력이 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사회 참여로 인한 양육 부담이 남성에 비해 더 크고 이로 인해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죄책감이 다르다는 연구들이 계속돼 왔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이주연(2014)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양육 죄책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정나래 등(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은 양육 죄책감을 보였고, 정유진, 전귀연(201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태연과 노현정(2005)은 양육 죄책감의 수준이 아닌 원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성정원과 박성연(2011)의 경우에도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 죄책감의 소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 죄책감의 수준과 소재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기 보고된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이미리, 신유림, 2013)나 취업모가 평정한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들(손수민, 2012; 임현주, 이대균, 2012)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지각된 남편 협력의 경우도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 같은 불안정 애착 수준에 따라 모가 느끼는 양육 죄책감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지각된 남편 협력과 자기-자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라 모형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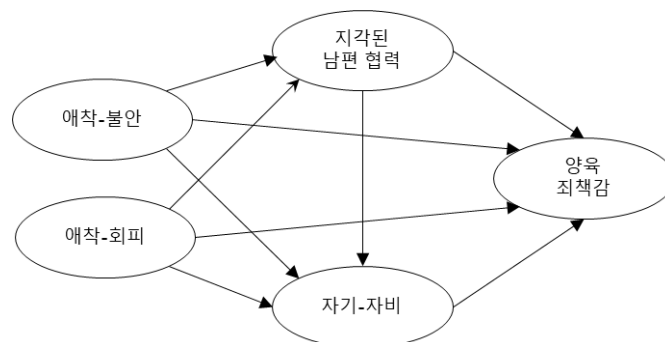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에 의해 각각,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개되는가?
3.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 죄책감,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는 다른 양상을 띠는가?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장훈 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유아들의 경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돌봄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쓰곤 한다(Hrdy, 1999). 또한 국내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는 5.4%에 불과하지만 학령기 미만 자녀의 경우 양육을 본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17.5%에 달해(박중서 등, 2021) 학령기 미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양육 강도에 있어 연구에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졌다. 인바이트에서 보유한 패널 중 전국의 학령기 미만(만 7세 이하)의 첫 자녀를 둔 기혼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랜덤 샘플링하여 온라인으로 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300명의 자료가 모아졌으며, 문항무응답을 한 요인들의 Mahalanobis의 거리를 0.1%(0.001)의 유의수준 하에서 검정하여(Kline, 2011) 이상치로 판정된 8개의 자료를

제한 292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 성인 애착,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을 묻는 문항들로 총 101문항이었으며 모든 문항은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4세에서 48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36.11세($SD=3.69$)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평균 6.56년($SD=2.65$)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90명(65.1%)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부 형태는 동거(함께)가 270명(92.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첫 자녀의 나이는 평균 4.09세($SD=1.97$)로 3~5세 사이가 132명(45.2%)로 제일 많았으며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이 166명(56.8%)으로 제일 많이 꼽혔다. 292명 중 취업모는 189명(64.7%)이었고 비취업모는 103명(35.3%)으로 집계되었다. 취업모의 근무 시간은 2시간에서 65시간까지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 34.23시간($SD=14.38$)으로 집계됐다. 취업모들이 근무하는 직종으로는 사무직이 124명(65.6%)으로 과반 이상이었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160명(84.7%)으로 대다수였다. 월평균 개인 소득은 200만원~300만원이 72명(38.1%)으로 제일 많았다.

측정 도구

불안정 성인 애착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 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등(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해 개정하고(ECR-Revised; ECR-R) 이를 김성현(2004)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 또는 유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

착-불안(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과, 타인에 대한 불신 또는 친밀함에 대한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회피(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불안정 애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 차원이 .89, 애착-회피 차원이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 차원이 .941, 애착-회피 차원이 .847이었다.

지각된 남편 협력

Abidin(1988)이 개발한 부모 동맹 측정도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를 Abidin과 Brunner(1995)가 수정했으며 이를 이선영(2016)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남편 협력은 남편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내와 대화하며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문항(예: “내 남편과 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눈다”,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나는 남편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들로 이뤄져 있다. 총 20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정말 그렇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남편의 협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에 대한 이선영(2016)의 Cronbach's α 값은 .96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60의 값을 보였다.

자기-자비

Neff(2003b)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을 김경의 등(2008)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거의 아니다, 5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친절(self-kindness)과 이의 역개념인 자기 판단(self-judgement)(예: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이 각각 5문항, 보편적인 인간성(common humanity)과 이의 역개념인 고립(isolation)(예: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마음챙김(mindfulness)과 이의 역개념인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예: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가 각각 4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각각 .87,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73이었으며, 분석을 위해 문항묶음한 묶음별 신뢰도는 각각 .713, .675, .695이었다.

양육 죄책감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척도

와 Mann과 Thornberg(1987)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 Scale)를 참고해 성정원(2011)이 제작,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나는 한 경우, 양육 죄책감을 느낀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실제 양육에서 경험한 정도에 따라 “경험 없음”부터 “매우 많이 느낀다”까지 5단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문항들은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 7문항,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예: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화를 냈을 때”) 7문항,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예: “양육 지식이 부족하여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자극을 주지 못할 때”) 5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이유로 인한 죄책감이 큼을 의미한다. 성정원(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각각 .82, .81,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묶음별 신뢰도는 .850, .898, .80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문항묶음을 위한 요인 부하량 분석에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측정 모형 검정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 매개 효과 유의성 검정, 집단 비교 등에는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문항별 이상치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해 정규성을 확인하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추정과정을 위해 하위 요인이 있는 변수인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의 경우는 고유 분산 고립 방법 중 내용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해 문항묶음하였다. 한편 하위 요인이 없는 변수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지각된 남편 협력의 경우는 SPSS를 통해 요인분석 후 요인 부하량을 고려해 고유분산 분배 방법 중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문항묶음하였다(김수영, 2016). 이후 변수값에 있어 취업/비취업모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했다. 다음으로는 모형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의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 검증 2단계(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의 1단계에 따라 측정모형 검정을 위해 문항묶음한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Mahalanobis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상치를 제한 후 2단계에 따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이후 취업/비취업모간 경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다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원자료($N=292$)에서 무선 표집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뽑아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고 변인들 간 관계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해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는 표 1에,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는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한 결과 왜도와 첨도가 -.524~.294, -.469~1.213으로 나타나 절대값 3, 10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결과 애착-불안은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N=292)

	1	2	3	4	5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272**	-			
3. 지각된 남편 협력	-.237**	-.237**			
4. 자기-자비	-.550**	-.349**	.385**		
5. 양육 죄책감	.262**	.078	-.103	-.260**	-
평균	3.276	3.877	3.430	3.197	2.655
표준편차	.931	.635	.751	.500	.568
왜도	.028	-.383	-.524	-.206	.294
첨도	-.221	.168	.128	1.213	-.469

주. ** $p < .01$

$p < .01$ 수준에서 애착-회피($r = .272$), 양육 죄책감($r = .262$)과 정적인 상관, 지각된 남편 협력($r = -.237$), 자기-자비($r = -.550$)와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한편 애착-회피는 애착-불안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남편 협력($r = -.237$), 자기-자비($r = -.349$)와는 $p < .01$ 수준에서 모두 부적의 상관이 있었지만, 양육 죄책감과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남편 협력은 .01 수준에서 자기-자비와 정적인 상관($r = .385$)을 가졌지만 양육 죄책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자비는 .01 수준에서 양육 죄책감과 부적의 상관($r = -.260$)을 가졌다.

연구모형 검증

문항묶음을 한 요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plus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 분포를 이용해 적합도

검정을 하거나 근사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 평가할 수 있다.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고(김수영, 2016), Kline(2011)과 Boomsma(2000) 등 여러 학자들이 χ^2 검정뿐만 아니라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의 근사 적합도 지수를 함께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CFI .95 이상, SRMR .08 이하를 좋은 적합도로 보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이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형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이며(김수영, 2016), RMSEA의 경우 .05 이하는 매우 좋은 적합도, .05 ~ .08의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df = 80, n = 292$) = 147.354 ($p < .05$)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근사 적합도 지수의 경우 CFI = .981, RMSEA = .054 (90% CI, .040-.067), SRMR = .039로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

표 2. 측정 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1-1	1-2	1-3	2-1	2-2	2-3	3-1	3-2	3-3	4-1	4-2	4-3	5-1	5-2	5-3
1-1. 애착-불안 1															
1-2. 애착-불안 2	.882**														
1-3. 애착-불안 3	.859**	.878**													
2-1. 애착-회피 1	.258**	.217**	.231**												
2-2. 애착-회피 2	.253**	.200**	.224**	.762**											
2-3. 애착-회피 3	.221**	.259**	.231**	.712**	.637**										
3-1. 지각된 남편 협력 1	-.194**	-.209**	-.198**	-.240**	-.175**	-.246**									
3-2. 지각된 남편 협력 2	-.196**	-.211**	-.205**	-.214**	-.164**	-.204**	.906**								
3-3. 지각된 남편 협력 3	-.240**	-.266**	-.258**	-.214**	-.178**	-.208**	.900**	.894**							
4-1. 자기-친절	-.452**	-.490**	-.404**	-.304**	-.259**	-.326**	.309**	.300**	.320**						
4-2. 보편적 인간성	-.530**	-.531**	-.461**	-.267**	-.282**	-.270**	.391**	.376**	.391**	.673**					
4-3. 마음챙김	-.464**	-.478**	-.436**	-.292**	-.206**	-.301**	.327**	.295**	.295**	.730**	.692**				
5-1. 돌봄 부족 죄책감	.146*	.154**	.167**	.017	.028	-.029	-.037	-.010	.010	-.169**	-.101	-.139*			
5-2.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	.170**	.200**	.187**	.100	.097	.042	-.111	-.111	-.100	-.290**	-.162**	-.233*	.687**		
5-3.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	.330**	.351**	.339**	.120	.142*	.069	-.162**	-.162**	-.171**	-.281**	-.243**	-.225**	.642**	.727**	
평균	3.375	3.234	3.219	3.950	3.908	3.773	3.395	3.407	3.497	3.185	3.271	3.139	2.657	2.784	2.467
표준편차	.966	.970	.984	.706	.708	.712	.757	.769	.811	.537	.572	.572	.648	.646	.621
왜도	-.054	-.080	.150	-.200	-.301	-.318	-.472	-.459	-.553	-.324	.024	-.209	.205	.159	.339
침도	-.157	-.420	.112	.186	.555	-.150	.219	.044	.169	1.354	.544	.862	-.543	-.709	-.202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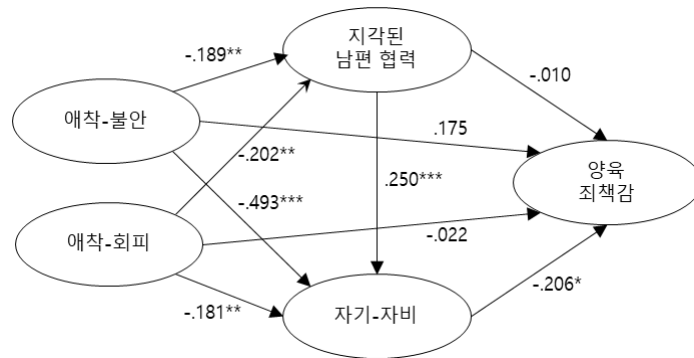
표 3. 연구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애착-불안	애착-불안 1	1.000***	.930***	
	애착-불안 2	1.027***	.952***	.034
	애착-불안 3	1.009***	.921***	.039
애착-회피	애착-회피 1	1.000***	.919***	
	애착-회피 2	.900***	.825***	.063
	애착-회피 3	.854***	.778***	.062
지각된 남편 협력	지각된 남편 협력 1	1.000***	.956***	
	지각된 남편 협력 2	1.007***	.948***	.028
	지각된 남편 협력 3	1.056***	.942***	.032
자기-자비	자기 친절	1.000***	.840***	
	보편적 인간성	1.042***	.821***	.085
	마음챙김	1.078***	.849***	.070
양육 죄책감	돌봄 부족 죄책감	1.000***	.773***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	1.124***	.872***	.069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	1.039***	.839***	.079

주. * $p < .05$, ** $p < .01$, *** $p < .001$

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자기-자비, 지각된

남편 협력을 매개로 양육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자비가 지각된 남편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할 것이라는 매개모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양육 죄책감을 설명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으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원자료(N=292)에서 무선 표집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만든 후 간접 효과를 추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해당 신뢰구간이 검정하고자 하는 값인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유의수준 5%에서 영가설이 기각돼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0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김수영, 2016).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애착-불안, 애착-회피에서 지각된 남편 협력을 거쳐 양육 죄책감으로 가는 경로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지만, 자기-자비를 거쳐 양육 죄책감으로 가는 두 경로는 영가설을 기각시키는 신뢰구간을 가지고 있어 단순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서 지각된 남편 협력과 자기-자비를 순차적

으로 매개해 양육 죄책감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집단간 차이 분석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특성 비교를 위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t 검정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은 애착-회피, 애착-불안, 지각된 남편 협력에 있어서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자비와 양육 죄책감에 있어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양육 죄책감의 세 하위 요인들은 돌봄 부족 죄책감(Cohen's d=.433),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Cohen's d=.315),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Cohen's d=.310)의 순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높은 효과 크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 상태는 자기-자비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았다. Cohen (1988)의 기준을 참고하면 효과크기가 0.2 이하면 작은 효과, 0.2에서 0.5면 중간 정도의 효과, 0.5에서 0.8이면 큰 효과로 보므로 모두 중

표 4. 부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Lower	Upper
애착-불안 → 지각된 남편 협력 → 양육 죄책감	.002	-.026	.032
애착-불안 → 자기-자비 → 양육 죄책감	.102*	.009	.204
애착-불안 → 지각된 남편 협력 → 자기-자비 → 양육 죄책감	.010	.001	.030
애착-회피 → 지각된 남편 협력 → 양육 죄책감	.002	-.029	.033
애착-회피 → 자기-자비 → 양육 죄책감	.037	.005	.100
애착-회피 → 지각된 남편 협력 → 자기-자비 → 양육 죄책감	.010	.002	.032

주. *p<.05

표 5. 취업모, 비취업모 집단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구분	취업모 (N=189)		비취업모 (N=103)		t	p	Cohen's d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애착-불안	3.262	.939	3.301	.920	-.337	.736	
애착-회피	3.862	.661	3.904	.586	-.534	.594	
지각된 남편 협력	3.465	.739	3.365	.771	1.096	.274	
자기-자비	3.255	.470	3.091	.536	2.713**	.007	
자기-친절	3.245	.510	3.074	.570	2.629**	.009	.316
보편적 인간성	3.333	.567	3.158	.567	2.518*	.012	.309
마음챙김	3.190	.525	3.045	.643	2.079*	.038	.247
양육 죄책감	2.731	.581	2.515	.517	3.143**	.002	
돌봄 부족 죄책감	2.754	.650	2.481	.609	3.499***	.001	.433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	2.854	.668	2.656	.585	2.521**	.012	.315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	2.533	.635	2.345	.578	2.494*	.013	.310

주. * $p < .05$, ** $p < .01$, *** $p < .001$

간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은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경로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 애착,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들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의 관계를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 양육 죄책감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 양육 죄책감은 애착-회피와 양육 죄책감 간, 지각된 남편 협력과 양육 죄책감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애착-불안은 애착-회피, 양육 죄책감과 정적 상관이,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애착-회피의 경우 지각된 남편 협력, 자기-자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양육 죄책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rennan 등(1998)이 ECR을 만들며 주장했듯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인지적인 억압을 방어기제로 사용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Mikulincer & Shaver,

2005; Shaver & Mikulincer, 2002), 죄책감이 고통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전략을 사용하느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설계를 가진 이애선, 정여주(2022)의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차원 모두 양육 불안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 죄책감이라는 변수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났을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자기-자비는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의 관계를 단독으로 매개함과 동시에 지각된 남편 협력을 통한 이중 매개 효과도 보였지만, 지각된 남편 협력은 단독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애선, 정여주(2022)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인데, 자기-자비가 양육 죄책감을 낮추는 효과를 가졌다는 것은 Sirois 등(2018)의 실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죄책감은 자의식적인 감정으로서(Tangney & Tracy, 2012), 특히 양육 죄책감과 같이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의식적 감정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이 자신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발생한다(Rotkirch & Janhunen, 2010). 이러한 자기 평가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Leary, 2004), 자신에 대한 비판단적인 관찰이 자기-자비의 세 요소 중 하나임을 상기할 때(이수민, 양난미, 2016) 가장 가까운 타인 중 하나인 남편의 지지를 비판단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양육 죄책감에 이중 매개 효과를 가진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하게 해석 가능해 보인다.

한편 지각된 남편 협력이 양육 죄책감에 단독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나래 등(201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 죄책감과 아버지 양육 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연구한 김은영, 이주연(2014)에 따르면, 양육 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는 거부·통제 양육행동에서만 의미 있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양육 죄책감을 덜 느끼는 집단과 많이 느끼는 집단 간 양육 행동이 아버지 양육지원 정도에 따라 달랐다는 것인데, 이는 지각된 남편 협력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지각된 남편 협력이 죄책감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타인의 복지를 위한 자신의 행동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죄책감의 본질인 만큼, 죄책감 수준에 따라 타인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Baumeister et al., 1994; Sznycer, 2019; Tignor & Colvin, 2017).

셋째, t 검정 결과 취업모의 양육 죄책감이 비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양육 죄책감이 비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정나래 등(2017)의 연구, 정유진과 전귀연(2018)의 연구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은 양육 죄책감을 보였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양육 죄책감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적 양육 행동 죄책감, 미숙한 부모 역할 죄책감에 비해 돌봄 부족 죄책감이 가진 두 집단 간의 효과 크기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정태연과 노현정(2005), 성정원과 박성연(2011)의 연구와 같이 양육 죄책감을 느끼는 소재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집단차를 보인다는 함의를 가졌다. 이것은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 죄책감의 많은 부분이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고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각된 남편 협력의 경우, 비취업모와

취업모 사이의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평정한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취업모에서 비취업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들(손수민, 2012; 임현주, 이대균, 2012)과 비교해 볼 만 하다. 이와 반대로 이소영 등(2018)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유배우 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육아 공평 분담 정도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관련하여 남편이 실제로 가사나 육아와 관련해 쓰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기혼 남성이 가사와 관련해 사용하는 시간이 그 양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거나(권기현, 전명진, 2014), 학령기 미만 자녀를 둔 남편의 1일 평균 육아시간이 취업모 남편의 경우 비취업모 남편보다 평일에는 3.4분 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1.6분, 3.6분 더 육아하는 것으로 나타나(이소영 등, 2018) 미미한 차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한다면, 실제로 남편의 협력 자체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별 차이가 없거나, 이에 대한 지각이 아내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 상태에 따른 자기-자비 수준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다중 역할 수행이 한 영역에서 획득한 자원들을 다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기능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다중 역할 이론에 따라(김혜원, 1997; Carlson et al., 2006), 심리적 건강과 정적인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자기-자비가 여러 역할 수행하는 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양육 죄책감을 보이는 것은 자기-자비로 완화되지 않는 수준의 양육 죄책감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양육 죄책감 간의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에 따르면 애착-불안은 양육 죄책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애착-회피는 양육 죄책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어 두 불안정 애착이 양육 죄책감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개인이 감정을 비합성화하는 전략을 씀으로써 정서적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Bachem et al., 2020; Bartholomew, 1990; Stevens, 2017). 또한 애착-회피는 지각된 남편 협력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애착-회피가 가진 독특한 기전이 가까운 관계를 무시하고 대상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고(Mikulincer et al., 2003; Weger & Tang, 2022) 관계에 대한 파트너의 대한 소유권을 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Merrill & Afifi, 2015)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둘째, 자기-자비가 양육 죄책감을 완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보여 불안정 성인 애착의 차원과 상관없이 자기-자비가 양육 죄책감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지각된 남편 협력이 자기-자비로 완전 매개되는 이중 매개 효과를 보였는데, 가장 가까운 타인이 나를 관찮은 양육자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양육 죄책감

을 낮춘다는 결과는 타인의 인정 자체보다 인정에 대한 지각이 자기-자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담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자비 명상, 자기-자비 프로그램 등 자기-자비를 높이는 다양한 수단을 어머니 상담에 도입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명료화하고 확장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의한 자기-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꿀 수 없는 양육 죄책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돌봄 부족 죄책감이 가장 큰 효과 크기 차이를 가졌으나 두 집단 사이 지각된 남편 협력에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보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록 양육에 한정된 정서적인 지지이긴 하지만,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양육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이경희, 김근주, 2018) 지각된 남편의 협력은 비취업모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의 남편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아내를 좋은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아내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죄책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비밀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정된 결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큰 양육 죄책감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결과이다.

둘째, 불안정 성인 애착을 측정할 척도가 자기보고식이었기 때문에, 측정 도구상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와 같은 비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해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지각된 남편의 협력이 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어 지각된 남편 협력이 양육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상충된다. 또한 비록 다른 척도를 쓰기는 했지만 취업모 집단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도를 더 높게 지각했다는 연구들과도 상충된다. 이에 관해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나 애착이 아닌 지각된 남편 협력과 관련된 만한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내막을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측정된 양육 죄책감이 본래의 정의대로 이상적 양육과 실제 양육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의 죄책감 경향성(guilt proneness)을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을 제한한 표집을 실시하거나 변수를 통제하는 등 기질적 특성의 효과를 방법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양육 죄책감의 본래 의미에 맞는 측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보미, 김경철 (202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7(2), 75-97.

- 권기현, 전명진 (2014).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및 이동수단 차이 분석. *지역연구*, 30(3), 109-129.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 13(4), 1023-1044.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명희,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99-115.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송이, 최혜영 (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 김은영, 강지현, 김명섭 (2019). 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 *재활심리연구*, 26(1), 123-136.
- 김은영, 이주연 (2014).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67-180.
- 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2.
- 김정아, 한세영, 김연화 (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3-184.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현옥, 김경호 (2009). 맞벌이가정의 보육지원 서비스 활용이 양육죄책감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9, 305-328.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김혜원, 유성경 (2017).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99-226.
- 김희경 (2012).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35-558.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희진, 문혁준 (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배선미, 최영희, 송승민, 차승은 (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301-312.
- 배애진, 심혜원 (2018).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불안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93-1217.
- 백현정 (2009). 임신부의 모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 지각과 정서상태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성정원 (2011).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성정원,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2), 123-145.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은경, 정아현, 김소아 (2014).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 149-169.
- 안선희, 권희경, 박수경 (2012). 남편의 양육협조 및 보육교사와의 협력과 주위 도움이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4), 231-252.
- 유애리, 윤성민 (2023). 영유아기 발달장애 아동의 수면 문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 스트레스 매개효과. 발달장애연구, 27(2), 161.
- 이경희, 김근주 (2018).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래혁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研究, 31(1), 37-43.
- 이미리, 신유림 (2013).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유아기질, 환경적 지지의 효과. 육아정책연구, 7(1), 1-20.
- 이선영 (2016). 남편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선영, 안선희 (2016).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어머니-교사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정관리학회지, 34(6), 41-54.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민, 양난미 (2016). 상담에서의 자기자비에 대한 개념정의와 개관. 상담학연구, 17(5), 85-108.
- 이에선, 정여주 (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양육 불안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489-508.

- 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전 성인애착(애착 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기자비와 낙관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13-439.
- 이주연 (2014).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 죄책감 영향요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59-177.
- 임소진, 전세경 (2016).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 교육참여가 자녀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123-137.
- 임영화, 김해란 (202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9(1), 225-247.
- 임현주, 이대균 (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 정나래, 김희수, 안선희 (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대한 남편의 협력 및 어린이집 만족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41-155.
- 정유진, 전귀연 (2018). 취업모의 완벽주의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일-가정 갈등과 양육죄책감의 이중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6(4), 377-390.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통계청 (2019a).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9b). 2018년 출생 통계(확정).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22). 인구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 Abidin, R. R. (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 Akbağ, M., & Erden-İmamoğlu, S. (2010). The prediction of gender and attachment styles on shame, guilt, and loneliness. *Kuram ve Uygulamada Eğitim Bilimleri*, 10(2), 669-68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chem, R., Mikulincer, M., & Solomon, Z. (2020). Interpersonal manifestations of attachment avoidance: The moderating role of impostor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4, 109669.
- Baldwin, M. W. (ed.) (2005). *Interpersonal cognition*. New York: Guilford.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umeister, R. F., Stillwell, A. M., & Heatherton, T. F. (1994). Guilt: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15(2), 243-267.
- Bluth, K., & Neff, K. D. (2018). New frontiers in 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17(6), 605-608.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61-481.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rlson, D. S., Kacmar, K. M., Wayne, J. H., & Grzywacz, J. G. (2006). Measuring the positive side of the work-family enrichment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131-16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dridge, K. A., Sevier, M., Jones, J., Atkins, D. C., & Christensen, A. (2007). Demand- withdraw communication in severely distressed, moderate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Rigidity and polarity during relationship and personal problem discuss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218-226.
- Flannery, A. J., Awada, S. R., & Shelleby, E. C. (2023). Influence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child behavior problems: Examining harsh and positive parenting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44(5), 1215-1236.
- Fonagy, P. (2022). 정서 조절, 정신화, 그리고 자기의 발달 (황민영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2년).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3(6), 353-379.
- Harper, F. W., & Arias, I. (2004). The role of shame in predicting adult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victims of child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359-367.
- Henderson, A., Harmon, S., & Newman, H. (2016). The price mothers pay, even when they are not buying it: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idealized motherhood. *Sex Roles*, 74(11), 512-526.
- Hrdy, S. B. (1999). *A History of Mothers, Infants, and Natural Selection*. NY: Pantheon.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eng, J. R., Turner, S. L., Kim, E. Y., Choi, S. A., Lee, Y. J., & Kim, J. K. (2017). Insecure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Fear of self-compassion and self-compassion as medi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2, 6-11.
- Kerr, M. L., Rasmussen, H. F., Smiley, P. A., Fanning, K. A., Buttitta, K. V., Benson, L., & Borelli, J. L. (2021). Within- and between-family differences in mothers' guilt and shame: Caregiving, coparenting, and attach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3), 265-27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eary, M. R. (2004). Digging deeper: The fundamental nature of "self-conscious" emo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2), 129-131.
- Leary, M. R., Tate, E. B., Adams, C. E., Allen, A. B., & Hancock, J. (2007). Self-compassion and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87-904.
- Mann, M. E.,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 Merrill, A. F., & Afifi, T. D. (2015). Attachment-related differences in secrecy and rumin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22(2), 259-274.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4). Security-based self-representations in adulthood: Contents and processes.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159-195).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theory and emotions in close relationships: Exploring the attachment-related dynamics of emotional reactions to relational events. *Personal Relationships*, 12(1), 149-168.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uris, P., Meesters, C., Brochard, N., Sanders, A., Kempener, C., Beurskens, J., Meesters, V., Cima, M., & Verhagen, M. (2014). Bound to feel bad about onesel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of guilt and sha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7), 1278-1288.
- Murray, C. V., Jacobs, J. I.-L., Rock, A. J., & Clark, G. I. (2021). Attachment style, thought suppression,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Testing a serial mediation model. *PLoS ONE*, 16(1), 1-22.
- Neff, K. D. (2003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2.
- Neff, K. D., & Beretvas, S. N. (2013).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elf and Identity*, 12(1), 78-98.
- Neff, K. D., Rude, S. S., & Kirkpatrick, K. (2007). An examination of self-compassion in relation to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4), 908-916.
- Overall, N. C., Girme, Y. U., Lemay, E. P., Jr., & Hammond, M. D. (2014). Attachment anxiety and reactions to relationship threat: The benefits and costs of inducing guilt in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235 - 256.
- Rotkirch, A., & Janhunen, K. (2010).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 Scarnier, M., Schmader, T., & Lickel, B. (2009). Parental shame and guilt: Distinguishing emotional responses to a child's wrongdoings. *Personal Relationships*, 16(2), 205-220
- Scher, A., & Mayseless, O. (2000). Mothers of anxious/ambivalent infants: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care context. *Child Development*, 71(6), 1629-1639.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irois, F. M., Bogels, S., & Emerson, L.-M. (2018). Self-compassion improves parental well-being in response to challenging parenting ev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53(3), 327-341.
- Sloman, L., Gilbert, P., & Hasey, G. (2003). Evolved mechanisms in depression: The role and interaction of attachment and social rank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2), 107-121.
- Song, S., Ding, W., Wang, L., Tan, D., Wang, D., Li, W., & Xie, R. (2023).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father-child 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112112.
- Stevens, F. L. (2017). Authenticity: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affective functioning.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0(4), 392-414.
- Sullivan, R., Green-Demers, I., & Lauzon, A. (2020). When do self-conscious emotions distress teenagers? Interrelations between dispositional shame and guilt,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52(3), 210-219.
- Sznycer, D. (2019). Forms and functions of the self-conscious emotio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3(2), 143-157.
- Tangney, J. P., & Tracy, J. L. (2012). Self-conscious emotion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Teubert, D., & Pinquart, M.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co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meta-analysi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4), 286-307.
- Tignor, S. M., & Colvin, C. R. (2017). The

- interpersonal adaptiveness of dispositional guilt and shame: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85(3), 341-363.
- Van Dam, N. T., Sheppard, S. C., Forsyth, J. P., & Earleywine, M. (2011). Self-compassion is a better predictor than mindfulness of symptom severity and quality of life in mixed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1), 123-130.
- Wallace, R.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Caregiver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in 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Doctoral thesis). Staffordshire University, Stafford.
-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7년).
- Weger, H., & Tang, C.-Y. (2022). Attachment avoidance and anxiety as predictors of confirming and disconfirming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7(1), 28-43.
- Wilson, J. M., Weiss, A., & Shook, N. J. (2020).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savoring: Factors that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2, 109-118.

원 고 접 수 일 : 2022. 10.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5. 30

게재결정일 : 2023. 07. 3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Guilt: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Husband's Support and Self-Compassion

Ji-Seun Kim¹⁾

Sung-Kyung Yoo²⁾

¹⁾Master's Degr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guilt, mediated by perceived husband's support and self-compassion through structural modeling. Data from 292 married women with their first child under the age of 7 were analyzed. First, the mother's insecure adult attachment, perceived husband's support, self-compassion, and parenting guilt a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However, parenting guilt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perceived husband's support. Second, self-compa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guilt while perceived husband's support had mediating effect only through self-compassion. Third, working mothers showed higher levels of parenting guilt than non-working mothers, even though they showed higher levels of self-compassion too, indicating a group difference in the aspect of guilt. The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parenting guilt, perceived husband's support, self-compassion